

## 문제 현상

1.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복용 시간을 자주 잊어 약을 제때 먹지 못한다.
  2. 알람을 맞춰도 깜빡하거나 알람을 끄고 복용을 잊는 경우가 많다.
  3. 가족들이 멀리 살면 복약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4. 복약 누락으로 증상 악화나 병원 재방문 사례가 늘어난다.
  5.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환자의 정확한 복약 이행을 파악하기 힘들다.
- 

## 문제의 본질

1. 지속적인 복약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알람이나 메모 등 기존 도구는 사용자의 행동 의존도가 높아 실효성이 낮다.
3. 가족·의료진과 환자 간의 실시간 복약 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하다.
4. 고령화 사회에서 복약 관리가 중요한데도 기술을 적용한 관리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5. 결국 문제는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체계적·자동화된 복약 지원 인프라의 부족에 있다.